기업 경영 정보

□ 자동차의 재자원화[1)]

- 일본의 자동차 폐차 현황
  - 일본에서는 연간 500만 대의 자동차가 폐차되고 있으며, 다량의 자동차 부품들은 각지의 산업 폐기물 최종 처리장에 버려지고 있음
  - 특히,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론 가스나 기폭제가 포함되어 있는 에어백 등은 환경 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
  -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동차 메이커와 수입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리싸이클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'자동차 재자원화 법안'을 마련함

- 일본의 자동차 재자원화 법안
  - 200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'자동차 재자원화 법안'은 기존의 가전 리싸이클 규제와는 다르게 소비자로부터 자동차의 재자원화에 필요한 요금을 미리 징수함
  - 이는 자동차 폐차시 폐차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폐차 및 방치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
  - 구체적인 리싸이클 요금은 자동차 메이커가 결정하도록 했는데, 약 2만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- 자동차 메이커 및 리싸이클 비즈니스 관련 업체의 움직임
  - 자동차 재자원화 법안 통과로 많은 기업들이 리싸이클 비즈니스 참여를 결정하였으며, 메이커들은 해체가 간편한 신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
  - 닛산자동차는 3월에 출시한 March의 재자원화 가능률을 업계 최고 수준인 95%까지 높였으며, 해체가 용이한 설계를 도입하였음
  - 도요타자동차는 작년 4월에 설립한 '자동차 리싸이클 연구소'를 통해 본격적인 자동차 재자원화 연구를 실시하기로 함

---

1) 日本經濟新聞(2002년 4월 10일자)

□ 시미즈(淸水)건설의 親환경 조달 시스템[2)]

- **시미즈건설의 그린(green) 조달 시스템 구축**
  - 스미즈건설은 약 1,800여 개의 건설 현장에 환경 친화적인 자재 조달을 지원하는 조달 시스템을 구축함
  - 동사는 본 시스템을 통해 조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, 현장의 자재 구입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한층 확대된 조달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음

- **조달 시스템의 전환**
  - 지금까지 본사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조달 기준만을 제시하고, 현장 담당자들이 본사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직접 선정, 구입해왔음
  - 하지만,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본사가 약 100개 품목의 친환경 대상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선정을 제한하고 본사의 조달량을 확대시킴
  - 그린 조달의 주요한 대상 품목으로는 재생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, 타일, 에코 전선, 건설 발생토 등이 있음

- **그린(green) 조달 시스템의 운영 및 효과**
  - 건설 현장의 담당자는 당일 조달 실적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하며, 조달 총량과 구입액을 본사의 안전 환경본부에 보고함
  - 종래는 각 제품별 조달량에 평균 단가를 적용해 조달 총액을 산출하였으나,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각 공사 현장의 조달 단가를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됨
  - 전체 산업계의 25% 자원을 활용하는 건설업에서 그린 조달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, 산업 전반의 환경 대책 움직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

(임종욱 : frontier@hri.co.kr ☎ 031-288-7348)

2) 日經産業新聞(2002년 4월 11일자)